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일본, 제2기 의료기기 기본계획 발표

CONTENTS

01

포커스

일본, 제2기 의료기기 기본계획 발표 1

02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ASCO, 3천여 건의 최신 연구결과 발표 4

미국 Merck, 중국 켈론사의 암 치료제 인수 4

중·동부 유럽, 서유럽에 비해 CAR-T 사용에 어려움 직면 5

일본, 전계놈해석 실행계획을 본격화 5

중국 Edge Medical Robotics, 시장 점유율 확대 6

동남아시아, 화장품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6

화장품 산업, 미용업계 트렌드를 제시한 박람회 7

심혈관계 질환,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 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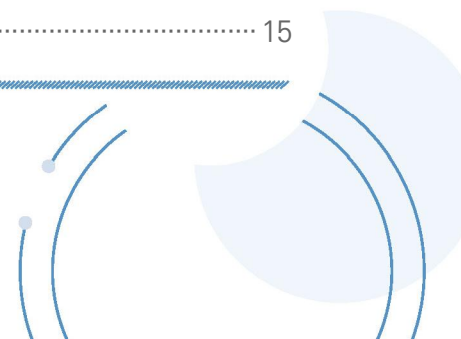
의료서비스

미국, 일본과 체결한 CoRe 파트너십을 강화	8
미국,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8
아일랜드, 미국 TMC와 파트너십 체결	9
유럽 EC, 국경 간 헬스케어 지침 평가 보고서 발표	9
쿠바 CSMC, 의료관광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10
베트남, 프랑스 파스티르연구소에 COVID-19 후속 연구를 제안	10
UAE, 의료 허브 및 의료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부상	11
나이지리아, 의료관광과 의료 인력의 해외유출 문제에 직면	11

04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Walnut, 선구매후지불 플랫폼 운영	12
미국 Geisinger, 클라우드와 AI 적용을 위해 AWS를 사용	12
유럽 EPRS, 헬스케어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13
일본, 건강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새로운 조직 설치	13
의료시스템, 메타버스 적용 전망	14
말레이시아, 자궁내막증 원격의료 플랫폼 출시	14
이스라엘, Femtech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벤처캐피털	15
제약업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15



일본, 제2기 의료기기 기본계획 발표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전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시책과 공정표, 의료기기 관계자들의 대응 사항들을 정리한 ‘의료기기 기본계획’을 약 6년 만에 개정. 동 계획은 의료기기 정책으로 특화한 일본 정부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16년 5월 책정됐으며 당시 아베 정부는 자국 의료기기 산업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삼았으나 이후 COVID-19 유행으로 의료상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 무엇인지 명확해졌고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의료보험 적용 등 의료기기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자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하고 제2기 기본계획을 책정

[1] 제2기 의료기기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

■ 일본 정부는 지난 '16년 5월 말 결정한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의료기기 기본계획)을 약 6년 만에 개정

-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1기 의료기기 기본계획을 책정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고, COVID-19 팬데믹과 새로운 의료기기 등장 등 의료기기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2기 의료기기 기본계획은 유효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실용화 등을 통해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26년까지 의료기기 관계자가 실현해야 할 미래상(이하 비전)을 설정하고 해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해야 할 시책을 정리
- 2기 기본계획은 (1)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일본의 지위 확립 (2)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세계 최초로 일본에 출시되는 매력적인 환경 구축 (3)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 확보라는 3가지 비전을 설정

■ 비전1 -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일본의 지위 확립

- 이를 위해서는 일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실시하는데 매력적인 환경을 일본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재’ ‘장소’ ‘자금’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동 비전에 대한 2기 기본계획의 목표는 △임상니즈를 발굴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견인 가능한 의료종사자·기업인재·학술인재 증가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 벤처기업과 타업종 참여 기업 증가 △연구개발 거점, 개발지원 거점 및 기업의 연계 강화 △First in Human을 포함한 임상시험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비임상적인 실험계·평가계 구축
- △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학계의 활용을 염두에 둔 의료정보 집약 △해결해야 할 의료·사회상의 과제를 고려한 중점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국제전개에 적극적인 일본기업 증가

■ 비전2 -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세계 최초로 일본에 출시되는 매력적인 환경 구축

-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기업에 매력적인 환경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부터 매출을 얻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고, 출시한 결과로 기업이 얻는 메리트를 충실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약사승인 취득, 후자는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충실한 대가(의료보험제도 상으로 혁신에 대한 적절한 평가 추진)와 더불어 일본의 약사승인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원활하게 의료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해당 비전에 대한 2기 기본계획의 목표는 △조기 실용화를 위한 약사승인제도·심사체제 구축 △의료보험 제도에서 혁신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실시 △규제조화 촉진 및 일본을 참조국(参照国) 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충실 등을 통한 일본의 약사승인의 국제적인 의의 향상

■ 비전3 -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상현장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을 구축
- 일본기업을 통해 공급이 가능한 의료기기 라인업 및 공급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촉진과 동시에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영기반을 강화하면서 풍부한 글로벌 자원과 인재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국제 전개를 촉진하는 것도 바람직
- 해당비전에 대한 2기 기본계획의 목표는 △국제전개에 적극 대처하는 일본기업 증가 △의료보험제도에서 혁신에 대한 적절한 평가 실시 △자연재해 및 팬데믹 등 유사시 안정적인 공급 확보 실현

[2] 의료기기 개발 키워드는 ‘예방’ ‘조기 발견’ ‘개별화 의료’ ‘신체기능 보완’ ‘부담 경감’

■ 2기 기본계획은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해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할 5가지 중점분야를 새롭게 설정

- 이들 5가지 중점분야에 대해 성과 개선정도, 비용 대비 효과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사회변혁을 초래할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되, ‘의료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의료기기’는 다른 중점분야와 비교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분야에 특히 주력
- 1기 기본계획은 일본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술지원 로봇시스템, 인공조직·인공장기, 신체에 부담이 적은 ‘저침습 의료’ 등을 중점분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
- 각 분야의 우수한 기술시즈·연구시즈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소위 ‘시즈 푸시형’ 개발지원을 채용
* 시즈(seeds, シーズ)란 일본에서 연구개발이나 신규사업 창출을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발명(기술)이나 능력, 인재, 설비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술시즈(技術シーズ)’, ‘연구시즈(研究シーズ)’ 등의 표현으로 사용
- 반면 2기 기본계획은 의료기기 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가 '40년 65세를 넘는다'는

점, COVID-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문제점 등 현재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주목한 ‘니즈풀 형’ 연구개발을 촉진키로 한 것이 특징

□제2기 의료기기 기본계획이 강조한 연구개발 추진 5가지 중점분야□

중점분야	의료기기 사례
1. 일상생활에서 건강 무관심층의 질병예방, 중증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 매일 달라지는 리스크 인자를 무의식적·비침습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 건강 무관심층의 건강 리터러시를 향상해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 이하 동일) 중대한 질환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진찰을 받아야 할 적절한 시기를 전달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을 가진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 관리를 도와 치료 지속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증화를 예방하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악화될 리스크를 감지하고 행동변화를 촉구하는 앱 등
2. 예후 개선으로 이어지는 조기 진단에 기여하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 수진자 및 수진자 가운데 정밀검사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치료개입을 실현하기 위해 진단의 정밀도 향상, 시간 흐름에 따른 경시적(經時的) 검사결과를 분석해 질환의 조기진단 및 발병을 예상할 수 있는 저침습이면서도 정교한 검사·진단기술을 갖춘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의 실수를 방지하는 진단보조 프로그램 기존 방법으로는 찾지 못했던 병변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기술 등
3. 임상적인 성과 최대화에 기여하는 개별화 의료를 위한 진단과 치료가 일체화된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별로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환의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치료방침 선택 보조나 검사·진단·치료 흐름이 확립된 분야에서 일련의 흐름을 자동화·자율화할 수 있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질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약제나 치료법을 제안하는 프로그램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과 양의 약제를 자동으로 투여하는 의료기기 등
4. 고령자 등의 신체기능 보완·향상에 관한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년까지 남녀 모두 건강수명을 3년 이상 늘려 75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나이를 먹거나 질병 등으로 상실 또는 저하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거나 향상시키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완하는 로봇수트 혹은 상실된 감각기능을 대체하는 의료기기 등
5. 의료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의료종사자의 진료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의료종사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X선 사진판독 보조 프로그램 또는 원격으로도 적절한 진단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등

- 동 계획은 이들 5개 분야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3가지 기반을 정비할 것을 명시
- △AI를 이용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해 산학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 이용·활용 기반 △비임상 시험 개발 및 국제규격 개발이 연동하는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기반,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 거점 △차세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부품·부자재 등의 핵심기술 개발, 제조기반 정비
- 의료기기 산업은 일본의 제조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년 전후부터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일정 수준 성장하고 있으나, 기업 단위로 보면 미국기업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2기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

[厚生労働省, 2022.05.31.; Medie, 2022.05.02.]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ASCO, 3천여 건의 최신 연구결과 발표

■ 6월 3~7일에 개최되는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에서 유방암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엔허투(Enhertu), 길리아드(Gilead)의 트로델비(Trodelvy), 면역항암제인 로슈(Roche)의 TIGIT 억제제 등 약 3천여 건의 최근 연구결과가 발표

-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결과들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ASCO측은 발표될 모든 연구결과 요약들의 제목을 공개한 상태이며, 이 중에서 AstraZeneca, Gilead, Roche의 3개사가 개발한 항암제 관련 연구결과가 의사들과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분야
- AstraZeneca와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Enhertu는 유방암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HER2 발현율이 낮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인 'DESTINY-Breast04' 연구 결과에 대해 시장이 주목
- Gilead의 암 치료제 Trodelvy에 대한 향후 판매전망 및 'TROPiCS-02'로 알려진 3상 연구와 함께 Roche가 발표할 'SKYSCRAPER-02'에 대한 임상결과에 대하여 의사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Biopharma Dive, 2022.05.26.; Pharmaphorum, 2022.04.27.]

미국 Merck, 중국 켈룬사의 암 치료제 인수

■ 미국 머크(Merck&Co)社は 14억달러에 중국의 쓰촨켈룬파마슈티컬(Sichuan Kelun Pharmaceutical)社와의 계약을 통해 켈룬사가 개발한 항암제를 인수

- 세부사항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Merck&Co는 Kelun과의 계약을 통해 면역종양학 (immuno-oncology)을 파이프 라인에 편입시켰으며,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외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에 대해 선급금으로 4,700만 달러를 지불
- Merck는 의약품에 대한 초기 협력의 일환으로 이미 총 1,700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불하였으며, 향후에 발생하는 단계별 기술료(milestone payment)와 판매에 따른 로열티로 13억 6천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
- 미국에 자회사인 Klus Pharma 두고 있는 Kelun Pharma는 종양학 및 비종양학 적응증을 모두 표적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에서 광범위한 소분자, 단클론항체, 이중특이적 항체 및 항체약물복합체 (Antibody-Drug Conjugates, ADC) 후보물질을 개발

[Pharmaphorum, 2022.05.18.; Fierce Biotech, 2022.05.19.]

중·동부 유럽, 서유럽에 비해 CAR-T 사용에 어려움 직면

■ 암세포 특이 항원을 인식하여 표적 파괴하는 치료법인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치료의 사용이 서유럽에 비해 중·동부유럽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18년 6월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이 노바티스(Novartis) 킴리아(Kymriah)와 길리아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 예스카타(Yescarta)의 사용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CAR-T 치료제들이 출시되었지만,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은 이러한 약품의 사용이 크게 저조
- 동부 및 중부 유럽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는 고가의 CAR-T 치료제를 수용할 정도로 이 나라들의 의료 관련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CAR-T 치료제의 사용이 저조한 편
- 동유럽 및 중부유럽 내에서도 이러한 첨단 치료법의 사용에는 격차가 존재하는데, 체코나 폴란드의 경우에는 이미 몇 개의 CAR-T 치료 센터가 분포되어 있지만,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CAR-T 치료법 도입의 초기 단계 수준
- 첨단 치료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들 나라에서 CAR-T 치료제의 가격 인하와 함께 의약품 관련 물류 시스템의 복잡성 개선 등 보건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2.04.29.; EBMT, 2022.03.09.]

일본, 전게놈해석 실행계획을 본격화

■ 일본은 암과 난치병 환자의 모든 유전정보를 조사해 DB를 구축하는 국가 프로젝트 ‘전게놈해석 실행계획(全ゲノム解析等実行計画)’을 진행 중이며 '21년 가을 시작된 암환자 대상 임상연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

- 전게놈 해석은 보다 많은 유전자 이상 발견이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암환자가 자신의 암 유전자에게 적합한 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법을 지칭
- 미국은 '15년부터 100만 명 이상, 영국은 약 10년 전부터 10만 명의 전게놈 해석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일본도 '21년 11월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가 '22년부터 5년간 암과 난치병 환자 10만 명의 전게놈 해석 실시를 밝혔고 개개인에 적합한 치료제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직접 환원하는 것이 핵심
- 일본은 판명된 약 300종류의 암 유전자 변이리스트(유전자 패널)와 환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유전자 패널 검사를 실시해 일치하는 유전자가 있는 경우 적합한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법에 보험을 적용하는 게놈의료가 진행되고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검사를 받은 환자의 약 10%에 불과
- 앞으로 임상연구 건수가 늘어나면 신약개발 등을 통해 더 많은 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암의 유전자 변이에 맞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

[産経新聞, 2022.05.24.; 京都新聞, 2022.01.11.]

중국 Edge Medical Robotics, 시장 점유율 확대

■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는 중국의 '엣지메디컬로보틱스(Edge Medical Robotics, EMR)'社가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준비 중으로 동 사는 중국 수술지원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 '17년 창업한 EMR社는 수술용 로봇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동 사의 다공식(多孔式) 내시경 수술지원 로봇인 MP1000은 모든 지표에서 라이벌인 세계 최고의 수술지원 로봇 '다빈치'의 'Si 서지컬 시스템'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
- 다빈치의 'SP서지컬 시스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단공식(單孔式) 내시경 수술지원 로봇으로 '18년 3분기 상품화됐으나 아직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
- 중국에서는 마이크로포트메드봇(Microport Medbot), 베이징서지리테크놀로지(Beijing Surgeri Technology)가 개발한 단공식 수술지원 로봇과 EMR의 SP1000이 경쟁하며 점유율을 확대 중
- EMR社는 아직 매출은 없지만 동 사 배후에는 유명한 기관투자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약 400억 엔을 넘어섰고 평가액도 창업 당시 약 8억 엔에서 4년간 약 2,000억 엔으로 급증

[36Kr JAPAN, 2022.05.30.; 電子デバイス産業新聞, 2022.03.18.]

동남아시아, 화장품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브랜드 해외 마케팅 대행사 세븐스(Seventh)社는 아시아 지역의 시장 개요, 소비자행태 분석, 사례분석, 해외진출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는 '2022년 범아시아 미용해외진출산업 보고서(2022泛亞美妆出海行业报告)'를 발간

-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유럽과 미국 시장과 달리 범아시아 시장, 특히 동남아 시장은 향후 화장품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18년 동남아 미용시장 규모는 1,640억 위안으로 연평균 9.3% 증가하여, '25년 3,048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는 중국 연평균 성장률 8.23%보다 높은 수준
- 또한 필리핀 25.7세를 포함한 동남아 인구 평균 연령은 28.8세로 중국보다 9세 어리며, '30년경에는 동남아 인구의 70% 이상이 중산층이 되고 소비시장 규모는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1년 동남아시아 인터넷 사용자는 4천만명 증가하여 총 인터넷 사용자는 4억 4천만 명으로 75%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하는 등 COVID-19의 영향으로 소비 습관 면에서 빠르게 확산된 온라인 쇼핑은 '30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쇼핑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

[199IT, 2022.05.11.; Sohu, 2022.03.18.]

화장품 산업, 미용업계 트렌드를 제시한 박람회

■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2,700개 이상의 출품기업과 140여 개국에서 22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미용 박람회인 ‘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22’에서는 향후 미용산업을 주도할 주요 트렌드로 △지속 가능성 △투명성과 지역 특화 △기술 기반 맞춤형이라는 개념이 제시

-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지속 가능성)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트렌드는 지속 가능성, 환경친화성 및 기후변화를 의식한 라이프스타일 등의 테마로, 팬데믹 기간 동안 동력을 얻어서 더욱 강력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고체형 샴푸나 바디케어 제품들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
- (성분의 투명성과 지역 특화) 많은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포함된 핵심 성분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성분임을 투명하게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결부된 마케팅 전략과도 연계
- (첨단 기술에 기반한 소비자 개인 맞춤형) 소비자가 직접 특정 성분을 가감하거나 스마트 기술과 디지털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소형 기계를 함께 판매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피부 상태를 파악한 후 최적의 제품을 전달해주는 서비스 등의 경향이 부상

[Premium Beauty News, 2022.05.30.; Cosmetic Business, 2022.05.03.]

심혈관계 질환,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가 크게 붕괴된 가운데, 특히 심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제약업계의 역할과 함께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연구 리더십이 요구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크게 붕괴되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심각하여 팬데믹 첫해에만 심혈관계 진료 횟수가 64%나 감소
-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관건인 심혈관계 질환은 팬데믹 발발 '19년 한 해에만 적절한 사전 진단과 치료의 부족으로 인해 사망자 숫자가 1,800만 명을 상회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제기
- 전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새로운 연구에 대한 리더십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형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Novartis와 NHS는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특정 단백질의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방해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짧은 간섭 RNA(siRNA)’ 치료법을 통해 30만 명을 치료할 예정이며, 이 치료법은 연간 2회 경구 복용으로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수 있음

[World Economic Forum, 2022.05.24.]



의료서비스

미국, 일본과 체결한 CoRe 파트너십을 강화

■ 미국과 일본 양국은 '21년 4월에 발표된 '미일 경쟁력 및 회복력(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CoRe)' 파트너십과 '22년 1월에 발표된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기반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 및 심화할 예정

- 미국과 일본의 협력 방향은 크게 △경쟁력과 혁신 △COVID-19 대응, 글로벌 보건 및 건강보안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녹색성장과 회복 등으로 3개 분야로 구분
- 미국은 건강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190억 달러 이상의 COVID-19 기금을 제공했으며, '21년 12월 COVID-19 전염병 퇴치를 돕기 위한 다자 파트너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8천만 달러를 발표
- 일본은 COVID-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50억 달러의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22년 4월 COVAX AMC Summit에서 기부금으로 최대 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일본 국립암센터는 '22년 5월 연구 협력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연장하고 암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White House, 2022.05.23.]

미국,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미국의 재택치료(Hospital at Home) 프로그램은 환자, 지불인 및 제공자에게 가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가능

- '20년 미국 보건부 산하의 보건의료재정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은 재택치료에 대하여 메디케어(Medicare)가 지불하는 '재택긴급치료면제(Acute Hospital Care at Home Waiver, AHCaH)' 프로그램을 실행
 - * COVID-19가 심화되고 병원이 수용 인원을 충족하거나 초과했을 때 미국 CMS는 긴급 권한을 사용하여 여러 규정을 면제하였으며, '20년 11월에 시작된 AHCaH 이니셔티브를 통해 Medicare 인증 병원은 집에서 입원 환자 수준의 치료 가능
- AHCaH 시행 8개월 후인 '21년 7월까지 프로그램이 수립되면서, 66개 의료시스템에 걸친 140개 이상의 병원이 가정환경에서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CMS의 승인을 획득

[Health Affairs, 2022.05.24.; Milliman, 2022.05.24.]

아일랜드, 미국 TMC와 파트너십 체결

■ 제조 및 국제 무역 서비스 분야에서 아일랜드 기업을 지원하는 아일랜드 정부기관인 엔터프라이즈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와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텍사스메디컬센터(Texas Medical Center, TMC)는 전략적 BioBridge 파트너십을 발표

- TMC-아일랜드 BioBridge 파트너십은 글로벌 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일랜드 기업, 기업가, 연구원, 임상의 및 업계 파트너가 세계 최대 의료 도시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 캠퍼스와 협력
- 또한 상업화, 혁신 및 연구를 통해 건강 및 생명과학 발전에 중점을 둔 파트너십은 혁신적인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솔루션 및 치료법을 통해 환자 건강 및 치료 경험관련 협업을 강화할 예정
- TMC의 규모와 브랜드 파워는 아일랜드 기업이 혁신하고 확장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Enterprise Ireland는 의료기술 혁신을 주도할 예정
- TMC는 심장 판막 교체를 위한 새로운 생체모방 리플렛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아일랜드 골웨이(Galway)에 위치한 신생 기업인 LifeLet Medical과 협력하고 있으며, TMC의 BioBridge 프로그램은 환자 경험을 개선하고 복잡한 건강관리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

[GOV.IE, 2022.05.10.; Enterprise Ireland, 2022.05.10.]

유럽 EC, 국경 간 헬스케어 지침 평가 보고서 발표

■ EU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EC)는 국경 간 헬스케어 지침(Cross-Border Healthcare Directive)에 따른환자의 권리와 지침을 채택한 10년 동안의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

- ‘국경 간 의료 지침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채택 후 10년 동안의 영향’에 관한 EC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간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는 잘 보호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지침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거나, 번거로운 행정 절차·국경 간 의료 옵션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한 정보 등 때문에 환자들은 해외치료 진행 시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
- 다만 EC는 의료비를 선불 지불하고 몇 달 후 상환 받는 문제점에 대해 환자가 공공 및 민간 의료 중 사전 승인 없이 헬스케어를 선택할 수 있고, 현재의 규정 하에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변호
- 유럽 바이오산업협회(EuropaBio)는 긴 승인 시간, 상호 연계가 부족한 분산화된 지불 방법 및 상환 프로세스, 어려운 임상시험 절차,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결여 등의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LaingBuisson, 2022.05.25.; Euractive, 2022.05.18.]

쿠바 CSMC, 의료관광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 쿠바에서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국가기관인 '쿠바의료서비스마케팅회사(Comercializadora de Servicios Médicos Cubanos, CSMC)'는 의료관광을 강화하기 위해 쿠바나칸그룹(Cubanacan group) 및 스페인 멜리아호텔체인(Meliá hotel chain)과 파트너십을 체결

- '22년 5월 3일에서 7일 동안 쿠바 바라데로(Varadero)에서 개최된 국제 관광 박람회인 FITCuba 2022에서 협약 체결
- 쿠바나칸과의 협약에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앤틸레스 제도(the Antilles) 중 가장 큰 나라인 쿠바에서 제공하는 '휴가기간 동안 신장질환자를 위한 혈액투석(Vacation Hemodialysis)'이라는 프로그램이 포함
 - * 앤틸레스 제도(the Antilles)는 쿠바·히스파니올라(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자메이카·푸에르토리코로 이루어진 대앤티리스제도와, 나머지 모든 섬들을 일컫는 소앤티리스 제도 등 2개의 제도로 구분
- 또한 CSMC는 Meliá Hotels Cuba와 또 다른 계약의 체결을 통해 의료관광 패키지를 제공하여 현재 스페인 체인과 기설립된 파트너십에 연속성부여
- CSMC는 FITCuba에서 섬의 의료관광 제안을 위한 기회와 새로운 제휴를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바나에서 '22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의료관광 및 복지국제 박람회(the First International Fair of Medical Tourism and Well-being) 를 추진할 예정

[Plensa Latina, 2022.05.05.; LaingBuisson, 2022.05.30.]

베트남,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에 COVID-19 후속 연구를 제안

■ 베트남 총리 팜민찐(Pham Minh Chinh)은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Pasteur Institute)와 COVID-19 및 후속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할 것을 제안

- 이 제안에 대해 파스퇴르연구소 소장 스투어트콜(Stewart Cole)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통적인 협력관계는 물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의사를 표명
-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는 베트남에 소재한 파스퇴르 연구소에 대한 40만 5천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COVID-19에 대한 연구 지원은 물론, 감시 및 진단 역량을 제고하고 전염병 관련 의학과 공공 의료 및 열대의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
 - * 프랑스는 베트남의 COVID-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3천 명이 넘는 베트남 의사들에 대한 연수, 백신 및 의료장비 제공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한 바 있음

[Vietnam Plus, 2022.05.26.; EIN Newswires, 2022.05.27.]

UAE, 의료 허브 및 의료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부상

■ 아랍에미리트(UAE)는 세계 최고의 의료 허브 및 의료관광 대상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COVID-19 대유행의 확산을 방지하는 UAE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과 이에 따른 성공적인 백신 프로그램(현재까지 2,470만 회분 이상 투여)으로 UAE 의료 부문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

- 아랍에미리트(UAE)는 COVID-19 백신을 생산한 최초의 아랍국가이며 하야트백스(Hayat-Vax) 백신은 중국 시노팜(Sinopharm)과 아부다비에 기반을 둔 건강기술회사인 G42 Healthcare 간의 공동 협력의 결과
- UAE 정부는 '22-'26년 연방 예산에서 헬스케어 및 지역사회 보호에 49억 디르함(한화 1조 6,768억원, 총 예산의 8.4%)을 배정
- 아부다비지주개발사(ADQ), 벤처 투자개발회사인 무바달라(Mubadala), 아부다비보건부(DoH), 보건예방부(MoHAP) 및 두바이보건청(DHA)와 같은 기관에 전략적 투자로 UAE는 지역에 걸친 기술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비

* ADQ: Abu Dhabi Development Holding, DoH: Department of Health, MoHAP: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DHA: Dubai Health Authority

- 인베스트 에미리트(Invest Emirates)에 따르면, 의료부문은 '16년 8월과 '21년 8월 사이에 7억 8,400만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했으며, 혁신 허브로서 UAE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신생 기업과 기업가들을 유치

[Gulf Business, 2022.05.22.; EPR, 2022.05.11.]

나이지리아, 의료관광과 의료 인력의 해외유출 문제에 직면

■ 나이지리아의 의료 체계는 수십 년간 빈약한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 열악한 의료 재정으로 보건의료 부문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결국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 역시 급증하는 추세

-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의료관광으로 한 해에 12~16억 달러를 지출하며,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면 나이지리아의 외환 보유고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
- 나이지리아 산부인과 학회(Society of Gynaecology and Obstetrics of Nigeria)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나이지리아의 보건의료 부문은 총체적인 붕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COVID-19 여파 극복을 위한 의료 인력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국가투자청(Nigerian Sovereign Investment Authority, NSIA)을 통해 2,2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두 개의 대형 병원의 설립 추진

[Leadership, 2022.06.01.; Punch, 2022.05.05.]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Walnut, 선구매후지불 플랫폼 운영

■ 미국 스타트업 월넛(Walnut)은 의료비에 대해 선구매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플랫폼을 통해 1,950억 달러 규모의 의료채무 시장을 해결하는 데 초점

- Walnut은 BNPL 플랫폼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의료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며, 고객에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의료 제공자에게 총 청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
- Walnut이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정신건강’이 가장 수요가 많으며, 불확실성과 광범위한 봉쇄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청구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 대출 금액은 평균 1,300달러로, Walnut은 연간 수천 건의 대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치과교정(Orthodontics), 피부치료 및 난임 등에 대해서도 대출 서비스를 제공
-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FF)의 연구에 따르면 2,300만 명의 미국인에 해당하는 성인의 약 9%가 250달러를 초과하는 의료 부채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1,950억 달러 규모의 의료채무 시장에서 2,000달러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

[Business Insider, 2022.05.16.; Health System Tracker, 2022.03.10.]

미국 Geisinger, 클라우드와 AI 적용을 위해 AWS를 사용

■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종합의료기업 가이징어(Geisinger)는 의료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플랫폼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이용하기로 결정

- 미국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 기업인 Geisinger는 현재 디지털 포트폴리오 운영을 위해 4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과 수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기술로 완전히 이전하기로 하고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를 사용하기로 결정
- AWS 측에 따르면 Geisinger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이번 계획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Geisinger 측은 이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채용으로 1일 18,000~20,000건의 데이터 동시 접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Geisinger의 AWS 기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헬스케어 부문에서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헬스케어의 질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

[Fierce Healthcare, 2022.05.25.; HIT Infrastructure, 2022.05.25.]

유럽 EPRS, 헬스케어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AI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

-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AI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AI의 실수에 의한 위험, 의료용 AI의 오남용, AI에 내재한 편견이나 불평등성, 투명성의 결여,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책임성, 실행 상의 다양한 장애요인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위험이나 요건등을 규정하는 광범한 AI 규제 프레임워크와 규정을 만들어내고 △의료용 AI 알고리즘의 전 주기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동 형성 노력을 축진이 필요
- 또한 △의료용 AI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의료용 AI의 책임성에 대한 모니터링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선하는 노력 등이 필요

[European Parliament, 2022.06.01.]

일본, 건강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새로운 조직 설치

■ 일본은 민관이 협력해 개인의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정부의 후원으로 기반정비 작업을 서둘러 손쉽게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IT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정책 추진

- 통신, 건강의료, 앱 개발 등을 개발하는 대기업과 신흥기업이 '22년 중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의 의료 및 건강 데이터 수집과 악용방지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 예정
- * 일본은 중소 규모의 앱 제공 업체 등이 데이터를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연계가 어렵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
- 경제산업성의 지원하에 설립되는 새로운 조직에는 NTT, SOMPO홀딩스, 에자이 같은 대기업과 온라인 진료 및 건강관리 앱을 개발하는 신흥기업 등 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
- 기업별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고 이용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기업들의 데이터 연계가 용이해지기에 혈압, 혈당수치 등의 데이터를 주치의에게 제공하여 의료에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
- 또한 데이터 이용 및 악용방지에 관한 지침도 작성할 방침으로 예를 들어 개인에게 앱 등을 통해 건강상의 조언을 하는 경우,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침에 따라 제작된 앱을 인증하는 제도 역시 창설할 예정

[読売新聞, 2022.05.31.; 믹스 Online, 2022.06.08.]

의료시스템, 메타버스 적용 전망

■ 메타버스 요소의 출현 및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환자 경험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현실과 가상 사이의 연결을 설정하여 건강 메타버스에서 보편적 건강의 비전을 실현하며 향후 10년 안에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전통적인 의료 모델은 △의료 자원의 불합리한 활용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만성질환 진단 및 치료 관리의 낮은 적용 범위 등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메타버스의 출현과 적용으로 의료시스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메타버스는 △임상수술 △의료로봇 △의료교육 △약물 및 의료기기연구개발 △AI슈퍼닥터 등 5개 분야 등에서 활용

- 메타버스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5G, 클라우드 컴퓨팅, XR, 생태계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10년 안에 성숙한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의료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요소의 적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과 자본이 그 궤도에 쏟아지고 있으며 유니콘 기업이 탄생
- '21년은 메타버스 원년이라 불리며 의료계 진출자도 크게 늘었고 AR/VR 기술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20년의 2배 이상 증가

[Deloitte, 2022.05.19.; 芯语, 2022.03.10.]

말레이시아, 자궁내막증 원격의료 플랫폼 출시

■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Bayer)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닥터온콜(DoctorOnCall), '말레이시아 자궁내막증 학회(Endometriosis Association of Malaysia, MyEndosis)'와 공동으로 자궁내막증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원격의료 플랫폼을 출범

- 여성 10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병인 자궁내막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한 이 플랫폼은 DoctorOnCall을 통해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질병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들은 6월부터 3개월 동안 무료로 원격 상담을 진행
- DoctorOnCall 측에 따르면, 아시아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자궁내막증 전용의 원격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최초
- MyEndosis 측은 이번 원격의료 플랫폼이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조기 치료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Bayer 측은 COVID-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통해 자궁내막증의 치료와 관리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MobiHealthNews, 2022.05.26.; BioSpectrum, 2022.06.01.]

이스라엘, Femtech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벤처캐피털

■ 이스라엘 펌테크 생태계에는 약 130개의 스타트업이 50개의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Femtech에 대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이 증가하는 추세

- 기술생태계 시장조사업체인 스타트업네이션센트럴(Start-Up Nation Central, SNC)의 데이터에 따르면, '20년 2억 1,500만 달러에 이어 '21년 약 1억 6,000만 달러가 이스라엘 펌테크 기업에 투자
- 원격 산부인과 영상 플랫폼인 일루미진(Illumigyn)은 '21년에 3,300만 달러를 모금하여 두각을 나타내었고 회사는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 싱가포르 및 한국으로 시장을 확대
-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며 국가가 45세 이하 여성의 체외수정 치료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난임,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산모와 아기 돌보기 분야가 이스라엘 펌테크 스타트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영역
- 지나생명(Gina Life)사는 데이터 과학과 AI를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질 분비물의 독점 바이오마커 또는 단백질 세트에 적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Gina Life의 제품은 '23년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

[Times of Israel, 2022.05.16.; McKinsey & Company, 2022.02.14.]

제약업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 '21년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79% 증가했으며, 제약 산업에서 디지털 헬스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로 자리잡는 추세

- 시장조사기관 CBI 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 동향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7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도 3~5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22년 봄에는 제약회사와 디지털 헬스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눈에 띄는 경향이 되고 있으며, 이미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상거래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증가 추세와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충격은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디지털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Bayer 그룹의 투자부문 자회사 립스바이바이엘(Leaps by Bayer)와 워봇(Woebot), 사노피(Sanofi)와 다리오헬스(DarioHealth) 간의 협력관계 구축 등은 제약회사들의 디지털 헬스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

* 특히 Sanofi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제품 확장을 위해 디지털 치료제 개발 기업인 DarioHealth에 3천만 달러를 투자

[Healthleaders, 2022.05.25.; DarioHealth, 2022.03.01.]